

인삼과 인삼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

김나영* · 한명주

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

본 연구는 2004년 2월 9일부터 16일까지 20대 대학생과 50-6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배부한 설문지 400부 중 395부를 자료로 사용하였다. 건강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대학생은 운동(44.7%), 스트레스 해소(26.1%), 식습관(22.8%)순이었고 중장년층은 운동(49.4%), 식습관(23.9%), 스트레스 해소(22.8%) 순이었다. 최근 6개월 동안 대학생의 48.8%, 중장년층의 80.6%가 인삼을 섭취하였다고 응답하여 중장년층이 인삼을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최근 6개월 동안의 섭취빈도는 대부분의 대학생(84.8%)이 1~2회 섭취한다고 하였으나 중장년층은 1~2회(35.2%), 7~8회(22.1%), 3~4회(20.0%), 5~6회(12.4%), 9회 이상(10.3%)로 섭취빈도가 높았다. 인삼을 섭취하는 이유는 '원기회복을 위해서'가 대학생 1.0%, 중장년층 11.7%로 그룹간에 유의성이 나타났다. 인삼을 섭취하지 않는 이유는 '맛이 없어서'가 대학생의 61.6%로 중장년층의 17.7%보다 높은 반면 '체질에 맞지 않아서'는 중장년층의 73.5%로 대학생의 17.0%보다 높았다. 생산되기를 원하는 인삼제품의 경우 대학생은 인삼요구르트(52.1%), 인삼주(51.2%), 인삼음료(32.6%), 인삼캔디(22.3%), 인삼액기스(20.5%), 인삼젤리(20.0%), 인삼정과(14.9%), 인삼떡(12.6%)이었고 중장년층은 인삼주(55.6%), 인삼액기스(42.8%), 인삼요구르트(36.1%), 인삼캔디(30.0%), 인삼정과(28.3%), 인삼젤리(24.4%), 인삼떡(19.4%)으로 나타났다.